

農村工業化가 住民의 意識構造에 미치는 영향 3개 標本地域의 調査를 중심으로

李 熙 慶

江原大 助教授

- I. 問題의 提起
- II. 農村工業化에 따른 個人의 指向意識
- III. 農村工業化에 대한 住民의 受容意識
- IV. 綜合 및 結論

I. 問題의 提起

工業化를 추진하고 이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要素는 물론 技術의인 進歩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계반 社會經濟力이 있어야 함은 사실이다. 이러한 힘들을 기초로 하여 低生産性的의 農業 중심에서 高生産性的의 工業立國으로 이행한다.

많은 國家들은 그들이 이미 工業化되어 있든 또는 아직 工業化에 이르지 못하였든 간에 자기들의 工業化를 위한 많은 發展모형을 소개하려 했고 또한 이를 도입함으로써 成功的인 工業化에의 接近을 모색하여 왔다. 특히 低開發國家群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課題들은 해석하기 위하여 工業國家群이 원용했던 發展모형에 많은 關心을 기울여 왔다. 世界는 그 方法이야 어떻든 全世界의 工業化로 進入되어 가고 있는 狀況

이지만 그 양상이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대체로 低開發國들은 先進國들의 工業化모형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自然資源 및 기타의 經濟的 資源의 差異에 따른 理由로서 그 推進上의 困難을 많이 겪는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는 國家間의 事情에 따른 制約要件으로서 공통적인 性格을 띠다고 하겠으나 工業化를 추진코자 하는 國民들의 意志의 差異는 비교적 擇一的인 要素로 작용한다. 즉 經濟成長 또는 工業化에 있어서 그 國家 所屬員들이 갖는 非經濟的인 要因으로서의 人間的인 要素 또는 社會的 要因이 중요한 變數로서 간주된다는 것이다. 文化的인 傳統과 規範, 그리고 價値觀, 態度 및 住民意識 등은 社會的 要因의 중심을 이룬다. 工業化發展 과정에서 人間要素의 全部를 다 취급할 수는 없겠지만 工業化作業이라는 行動前後에 그 社會的 成員들이 갖는 態度 또는 價値觀의 수준 또는 정도는 工業化作業의 行動의 속도를 상당히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D. Kim, 1979). 工業化發展이 상대적으로 일찍 진행된 西歐諸國에 있어서 이러한 人間的 要素에 대한 관심은 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後發工業國에 경우 이를

다소 경시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社會成員들의 價値觀의 狀態는 工業化를 위한 基本的인 先行條件이며 心理的인 基礎를 제공한다는 것이 通論化되고 있다. 물론 工業化를 담당하는 集團들의 價値觀의 差異가 工業化의 내용과 속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政府官吏, 企業人, 知識人, 宗教人들에 따라 工業化에 대한 價値指向이 다를 수 있고 또한 그들의 價値觀은 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工業化는 그 社會成員의 價値觀에 따라 진행되기도 하지만 工業化에 따라 그 社會成員의 價値觀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工業化와 연관되는 價値觀은 다음 세 가지의 주요한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生産性本部 1966; K. D. Kim 1979).

첫째 工業發展의 前提條件 또는 原因的 要素로서의 價値觀으로서 價値觀이 工業發展에 寄與의이거나 沮害的이거나 하는 두 가지 視角으로 볼 수 있는 국면이다. 즉 工業化行動이 시작되기 이전에 기존으로서 가지고 있는 個人的 指向意識이다. 물론 이러한 個人的 指向으로서의 價値觀은 오랫동안 歷史的인 諸經驗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것이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방향과 정도는 工業化의 受容與否를 결정한다. 西歐에서의 경우는 프로테스탄트倫理的인 指向이 工業化에 寄與的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儒敎의 東洋社會는 대체로 沮害的인 要素로 작용해온 經驗을 갖고 있다.

둘째는 要因結果의 時間的 先後는 분명치 않을 수 있으나 工業化 과정과 共變的인 要因으로 또는 그 결과로 변화하는 價値觀인데 工業化主導集團에 의한 工業化推進 과정에서 受容集團들이 이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寄與的인 價値指向이 생성되거나 또는 拒否的인 價値指向을

보임으로써 沮害的인 價値指向이 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러한 價値指向은 工業化着手와 그 進行過程에서 종래의 個人的 指向이 共變하거나 또는 工業化가 완료된 후 그 결과의 確認을 통한 結果적 價値觀의 形式을 이끌어 낸다. 특히 意圖的으로 또는 計劃的으로 추진되는 後進國家群에 있어서의 工業化의 경우는 이러한 價値觀의 變化가 尤甚하다.

세째는 工業化過程을 통하여 共變的인 내지 結果的인 現象으로 일어난 새로운 또는 변화된 價値觀이 장래의 工業化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促進劑의 役割을 하든가 아니면 構造的인 狀況的인 諸要因으로 인하여 오히려 障礙要素로 作用하기도 한다.

一般的으로 工業化와 관련된 이상의 세 가지 價値觀에 따라 工業發展과 價値觀을 취급하나 그 치중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社會發展過程에 있어서의 그 정도와 방향은 그 社會成員의 心的인 內容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人間의 心的인 內容이란 潛在上의 動的인 要素로서 變動의 근본적인 出處가 되는 것이다. 工業發展에 관련된 基本的인 것은 工業化努力에 대한 合理的인 價値指向에서 찾을 수 있다. 富를 목표로 하는 經濟的인 노력에 대한 指向은 보편적인 현상인데 다만 그러한 指向의 방식이나 노력의 형식은 그것이 작용하는 時間的인 空間的인 文化差異에 따라 다른 것이다. 工業發展 이전의 西歐社會는 전반적인 文化的인 條件이 급속한 經濟的인 進步와 技術的인 革新을 가능케 하는데 필요한 價値指向을 가지고 있었다. 知的인 趣向과 科學的인 分野에의 關心은 그 時代의 보편적인 特性이다. 따라서 이러한 合理的인 指向은 技術革新과 科學的인 要求에 응하는 經濟的인 成就의 合理的인 追求라는

價値指向을 갖고 있는 것이다. 資本形成이라는 문제에서 볼 때 이 는 工業發展에 아주 중요한 要素인데 대체로 사람들은 個別的이든 集團的이든 돈을 저축하고 투자한다. 이 경우 자기의 傳統的인 어떤 價値觀 때문에 寶石이나 土地로써 財産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에서의 價値觀에 대하여는 그 非合理性과 아울러 工業發展에 沮害的인 要素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工業化와 價値觀의 論理는 農村工業化에도 援用이 가능하다. 물론 農村의 工業化는 그 出發이 農外所得의 증대 또는 궁극적으로 農村의 都市化라는 次元에서 생각할 수 있으나 實質的인 意味는 약간의 ニュ앙스를 달리한다. 즉 農村의 工業化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는 農村地域에 대한 工業地의 形成 또는 工業生産地의 擴散過程으로서의 工業化로서 勞動力 또는 原料의 背後 供給地로서의 役割을 하면서 工業部門發展의 惠澤이 파급되어 開發되는 地域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폐쇄된 農村地域을 보전하면서 自生的 또는 自助的인 農外所得의 획득을 위한 부분적 工業生産化를 추구하는 면으로서의 農村工業化의 理解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이러한 分離的인 概念으로서의 農村工業化가 이해되지는 않는다. 비교적 그 概念의 境界가 애매한 面도 있지만 대체로 抱括的인 意味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순히 순수한 農業生産 中心地域에 工場이 입주하여 工業生産이 시작되고 賃金勞働者가 생기고, 出退勤의 作業形態가 생기면 農村이 工業化되어 가는 發端으로서 인식하는 傾向이 있으며 이러한 事態發生과 進후하여 農民들은 經濟活動과 生活環境의 變化를 겪게 되며 意識의 變化도 아울러 갖게 된다. 따라서 그 精確한 意味가 어떤 點에 農村工業化는 전체 社會變化의 테두리

에서 벗어날 수 없기는 하지만 農村地域住民들에 의한 農村工業化의 價値指向面에서의 原因的 指向意識내지는 受容意識에 따라 影響을 받게 된다.

즉 農村住民들이 原初的으로 農村工業化에 대해 어떤 價値指向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그 價値指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곧 農村住民들의 工業化에 대한 寄與的 또는 沮害的인 입장을 설명받을 수 있는 기틀은 제공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工業化와 관련된 價値觀의 形式은 세 가지로 나타나지만 세번째의 形式인 工業化의 結果로 나타난 새로운 價値觀이 계속되는 工業化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次元은 農村地域의 경우 두번째 形式에 흡수되며, 農村이 工業化되어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價値指向이란 이미 農村地域에서의 價値觀이 아니라 기존의 同質的인 커뮤니티가 이미 와해된 都市 커뮤니티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農村工業化의 前提條件으로서의 價値觀과 農村工業化과정과의 共變의 要因으로서의 價値觀을 對比함으로써 農村地域에서의 農村工業化의 適否와 方向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개의 地域群을 대상으로 住民意識을 조사함으로써 農村工業化에의 態度——寄與的인 가 또는 沮害的인 가——를 파악코자 하였다. 비록 人爲的이기는 하지만 農村工業化가 進행되고 있는 地域群(隣接地域)과 農村工業化가 아직 進행되지 않고 있는 地域群(遠接地域)으로 구분하였으며 標本의 偏重性을 지양하기 위하여 對象地도 平野農業地域(咸平), 都市工團隣接地域(密陽), 中間地域(晉陽) 등 3개 地域을 대상으로 하

여 총 360가구에 대하여 설계된 調査票에 의한 直接面接 방식에 의하되 각 지역별로 工場隣近地域(該地域 經濟圈 中心地에서 4km 이내)과 工場遠近地域(8km 外廓)로 나누어 集計 分析하였다(崔洋夫外 1979).

II. 農村工業化에 따른 個人的 指向意識

1. 階層意識

우리 나라 農村의 階層區分은 대체로 土地의 所有形態 및 規模와 관련한 것과 身分에 의한 것에 의하여 객관적인 評價를 하였으나(崔在錫 1981)현재에 이르러 신분에 의한 階層評價는 그 의미가 없어졌고 단지 土地의 所有形態내지는 所有規模에 의존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 물론 土地와 관련한 階層評價 이외에도 통상적인 收入規模, 또는 職業, 所有資產 등에 의한 지표가 검토될 수는 있으나 土地와 관련된 指標 이상의 뚜렷한 것은 없다. 學者들의 研究結果에 따르면 農村地域은 都市와 비교할 때 階層評價上 都市가 職業指標에 의하는 것에 반하여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또한 階層의 分布도 都市가 中層이 높음에 비하여 下層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Barringer 1980).

本調査에서 나타난 耕地所有 規模別 分布를 보면 이러한 指適은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데 耕地所有규모가 적을수록 그 分布가 높은 소위 非對稱分布의 J字型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耕地의 所有規模를 隣接地域과 遠接地域으로 구분해 볼 때 그 정도는 隣接地域에서 더욱 심하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전국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農村으로부터의 人口移出이 계층적으로 생긴다. 農村의 生活基盤이 약한 非農民 下層, 그리고 都市로 나간 후에도 어느 정도 經濟的 生活이 보장되는 上層의 두 계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즉 意圖的이든 自然的이든 農村工業化의 進行地域은 그만큼 취약한 生活基盤으로 인하여 工場入住가 보다 용이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는데 이는 本調査地域에서의 非農 및 小作農이 25.4%임에 비하여 隣接地域은 3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農村工業化의 示範의 對象地域은 기존 都市 또는 工業地帶의 연장보다는 취약 農村地域을 그 대상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階層意識의 把握을 主觀的 評價에 의한 경우 대체로 이는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階層構造의 間隔을 분명히 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全國的인 수준에서와 自己 居住地域 수준에서의 主觀的인 階層評價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住民들이 全國的인 수준에서는 비교적 低評價하고 있으나 地域內 水準에 있어서는 다른 집과 비교한 自己집의 經濟事情을 全國 수준에 그것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전국 수준에서나 地域內 수준에 있어서는 주관적 階層評價가 中流에 집중하고 있어 耕地所有 規模에 의한 객관적 評價와는 상이한 現象을 보임으로써 객관적인 評價와 주관적인 評價 사이에는 큰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住民들의 心理的인 階層認識이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地域水準에서의 隣接地와 遠接地의 주관적 階層意識은 前者가 後者보다 上位階層意識이 다소 높다. 이는 耕地所有規模別로 본 평가와는 반대

主觀的 階層意識

	단위 : 명 (%)	
	全國水準	地域內水準
上層	20 (5.9)	37 (10.8)
中層	228 (66.5)	188 (54.8)
下層	95 (27.5)	118 (34.4)
計	343 (100.0)	343 (100.0)

의 현상으로 工業化에 따른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혜택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示唆을 하고 있는데 兩地域의 職業分布에서 前者의 경우 俸給生活者가 높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隣接地에서의 生活向上이 좋아지는 傾向을 보인다.

2. 地域社會 統合度

住民들의 地域社會에 대한 愛着은 주로 住民들간에 人間關係的인 接觸 및 人間關係를 포함한 物理的인 生活環境에의 適應狀態에서 그 정도가 나타나는데 이를 地域社會에 대한 統合度의 指標로서 규정할 때 일반적으로 統合度가 높다는 것은 革新的인 文化傳播에 대한 抵抗도 강하지만 일단 수용되면 급속히 확산하는 특징을 갖는다. 住民들 간의 接觸패턴은 대체로 隣接地든 遠接地든 一次的 接觸이 지배적(金東一 外 1982)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95.6%). 이는 農村이라는 커뮤니티가 갖는 特性이 그대로 繼承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소 工業生産方式이 도입된 隣接地의 경우 일차적 接觸이 둔화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한편 地域生活에의 滿足의 정도는 隣接地와 遠接地를 비교할 때 비교적 뚜렷한 差異가 발견되고 있다. 農村工業化 이전 상황에서의 住民들의 개인적 指向意識은 他地域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었으나 工業化의 進行에 따라 그 생각이 많이 약화되고 있음은 보이고 있다.

地域社會生活의 滿足度

	단위 : 명 (%)		
	살기에不便없다	他地域으로이주하고싶다	計
隣接地	132 (78.1)	37 (21.9)	174 (100.0)
遠接地	114 (65.5)	60 (34.5)	169 (100.0)
計	246 (71.7)	97 (28.3)	343 (100.0)

農村의 工業化는 그 地域에서의 계속적인 定着을 유도하는 要因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소는 시사한다고 하겠다.

즉 地域社會에의 統合度는 農村이 工業化됨에 따라 住民間의 統合을 저해하는 原初的 接觸의 弱화를 가져오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地域生活에의 滿足을 높여줌으로써 移出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비교적 분명하다.

한편 地域社會生活에의 統合度내지 滿足度와 아울러 구체적으로 生活施設에 대한 住民들의 評價를 보면 農村의 工業誘致가 가져오는 效果에 대한 判斷은 보다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社會施設에 대한 滿足度는 그 地域社會生活에서의 統合度 및 生活適應의 중요한 指標이기도 한데 調査地域의 社會施設에 대한 滿足度는 대체로 劣惡한 수준이며 특히 醫療, 教育, 交通施設의 未備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農村工業化내지 都市化에 대한 選好를 유인하는 직접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이제 이를 工業地域에 인접된 地域과 멀리 떨어진 遠接地와를 비교해 보면 隣接地에서 그 사정이 호전되는 傾向을 발견할 수 있다. 施設全體로 볼 때 遠接地의 경우 滿足度가 12.7%임에 비하여 不滿足度는 53.5%로 크게 나타나 그 상대적인 격차가 40.8%포인트이나 隣接地의 경우는 滿足度가 28.3%, 不滿足度가 31.8%로 그 상대적인 격차는 3.5%포인트로 크게 좁혀지고 있다. 특히 醫療, 交通, 住宅施設이 현저히 개선

된 것으로 住民들의 意識에 반영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農村工業化의 惠澤을 社會施設面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住民들의 工業化에 대한 긍정적인 價値指向을 읽을 수 있다. 또한 醫療와 交通施設에 대한 滿足度가 전체적으로 아직 만족할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그 改善效果를 뚜렷이 느끼게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價値變化는 보다 적극적인 農村工業化에 대한 住民들의 選好를 유발한다.

3. 經濟性에 대한 意識

農村地域에서의 生活變化의 하나는 經濟意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全國의 次元에서의 國民들의 價値觀의 變化와 그 脈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金錢의 收支計算이 뚜렷해지고 있고 勞動賃金에 대한 觀念이 형성되어 간다고 지적되고 있다(李萬甲外 1979). 과거의 傳統的 農村에서는 勞動에 대한 貨幣的 價値를 따지지 않았고 長期的인 補償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協業에 의한 共同的이며 평등적인 生活意識이 지배하여 왔다. 즉 과거 農村에서의 勞動力 확보는 協業에 의한 勞動交換을 통하여 域內的 安定性和 非移動性을 지켜왔다. 그러나 農耕地 所有의 縮小傾向과 아울러 小規模耕地 所有層을 중심으로 한 農外所得의 依存이 높아감에 따라 貨幣的 價値로 經濟性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農外所得源의 多樣化는 물론 追加的인 收入擴大에의 關心을 높이고

所有耕地規模의 縮小 傾向

	단위 : %		
	大 農	中 農	小 農
1979년	6.2	29.1	64.7
1982년	5.0	20.8	74.2

註 : 1979年値는 「農外所得과 農村工業開發」, 農村經濟研究院, 1979에서 인용.

勤 勞 性 向

단위 : 명 (%)

		돈벌이에 時間投入	休息 또는 餘暇活動	計
地域別	隣 接 地	136 (78.2)	38 (21.8)	174 (100.0)
	遠 接 地	139 (82.2)	30 (17.8)	169 (100.0)
職業別	農業從事者	256 (81.3)	59 (18.7)	315 (100.0)
	非農業從事者	19 (67.8)	9 (32.2)	28 (100.0)
平 均 計		275 (80.2)	68 (19.8)	343 (100.0)

있다.

따라서 이는 住民들의 勤勞性向面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時間의 餘裕가 있을 때 休息이나 餘暇活動으로 보내기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意識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勤勞性向은 職業別로 非農業從事者보다는 農業從事者에서 높고, 또한 隣接地보다는 遠接地의 住民들이 높은 勤勞意欲을 보이고 있어 農民들의 생각은 경작할 땅의 여유가 없고 農業의 不利에서 오는 生活의 改善을 위한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에 工業地域隣接地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所得의 餘裕가 생긴 탓인지는 모르나 休息 또는 餘暇에 대한 選好傾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철저한 經濟的 合理性이나 企業家的 思考에 입각한 돈벌이에 대한 意識은 부족하다. 子女들의 혼인을 당한 父母들이 잔치에 들 만한 費用을 現金으로 子女들에게 주는 경우 (39.5%)보다는 費用을 들어서 子女와 이웃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는 경우 (60.5%)가 높다. 일반적으로 前者의 경우 經濟性있는 行動으로 볼 수 있겠는데 아직 우리 나라의 農村住民들은 보다 적극적인 經濟的 合理性에 대한 意識은 확고하지 못하다. 이웃과 가족같이 지내는 地域社會의 統合度가 工業化에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음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결혼잔치를 위한 社會的 支出에 대한 긍정적 認識이 아

적은 높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隣接地보다 遠接地에서 다소 더 강하게 나타나기는 하나 隣接地의 住民들도 대체로 社會的 支出行動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餘裕資金이 있을 때 이를 이용한 적극적인 經濟活動으로서의 새로운 事業에의 投資에 대한 생각은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실제로 어느 정도 遠接地 住民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經驗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隣接地 住民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農村에서 상당한 정도의 企業家精神이 형성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崔協外 1981) 새事業에 投資(27.6%)보다는 안정된 生活의 營爲(72.4%)를 보다 더 선택하는 價値指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經營知識의 不足도 하나의 理由는 된다.

4. 變化에의 受容性

農民들은 일반적으로 變化에의 受容性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行動面에서 소극적이거나 行動化할 수 없는 與件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變化에 대한 受容意識을 알기 위해 현재의 自己職業意識, 子女에 대해 기대하는 職業과 관련한 教育觀, 그리고 傳統에 대한 態도의 세 가지 指標를 적용해 보았다.

우선 農村住民들의 自己職業에 대한 意識은 天職으로 알고 계속하겠다는 態度가 지배적이다(75.5%).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自己職業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李萬甲 1981). 그러나 다른 職業으로 바꾸려는 생각이나 行動은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의 職業을 계속하겠다는 態度에는 「満足하고 있는 것」과 「満足하고 있지는 않으나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意見이 포함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개인적 指向意識은, 그것이 行動化되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轉職意思가 표시되어야 하나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특히 隣接地의 경우 轉職의 可能性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轉職에 대한 생각은 遠接地와 별로 差異가 없다. 이는 工業地形成에 따라 완전한 職業上의 變身을 기한다기보다는 從來의 農業을 계속하면서 追加의 所得源의 確保를 더 바라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農村에서의 職業分化란 극히 제한되어 있어 農業以外에 택할 수 있는 것이 商業, 公務員 등이 고작이며 農外所得源의 주가 되는 것도 俸給收入 아니면 兼業收入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職業에의 選好는 工業地形成과 크게 상관되지 않는다.

다만 子女의 職業과 관련한 教育觀에서 보면 非技術系의 教育(47.3%)보다는 技術系統의 教育(52.7%)을 다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거에 주로 管理·事務職이나 商業 쪽에서 子女들이 職業을 選擇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子女의 教育觀을 가졌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변화되는 教育觀을 보인다고 하겠다.

한편 傳統에 대한 생각은 아직 保守的이다. 과거의 傳統의 慣習이나 理念을 빨리 버려야 한다(42.8%)는 생각보다는 과거의 傳統이 보존되어야 한다(57.2%)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傳統적인 것에 대한 固執은 發展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農村住民들은 都市의 下層文化의 流入으로 道德的, 論理的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工業地域 隣接地는 그 強度가 약화되는 징후가 보인다. 이는 주로 所得增大에 따른 經濟的 地位에 의해 社會的 地位를 대체하려는 추세와 관계되는지도 모르겠다. 아직까지

傳統固守의 態度가 강하기는 하나 傳統脫皮의 태도도 상당한 強度를 보임으로써 農村地域에서의 傳統에 관한 態度葛藤이 심각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農村地域에서의 諸變化에 대한 태도는 아직 意識面에 있어서나 行動面에 있어서 硬直性을 갖고 있기는 하나 變化가 진전되면 이를 거부할 힘은 없는 것 같다. 子女의 職業 및 配偶者選擇에 있어서 子女 本人의 決定에 맡긴다는 意識에서 볼 수 있듯이 自己職業을 天職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傳統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하나 새로운 變化가 오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受容姿勢가 보인다. 變化의 受容 또는 拒否의 規範的 價値觀이 없다.

5. 個人的 成就에 대한 評價

人間이 社會的 地位를 획득하는 데는 業績性과 歸屬性에 대체로 의존하며 傳統的이며 閉鎖的인 社會일수록 歸屬性에 의한 社會的 身分이 정해지는 경향이 높다. 社會의 變化, 특히 工業化社會가 될수록 歸屬性보다는 個人적 成就에 의한 業績性이 증시된다. 유사한 調査結果에 따르면 우리 農村住民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實力이 있어도 연줄이나 背景이 없이는 出世할 수 없다고 믿는다(金東一外 1982)는 意見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農村住民들의 아노미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個人的 成就에 대한 肯定的인 評價의 度를 알기 위한 本調査의 結果는 自己能力과 意志에 의한 出世方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工業社會로 가는 전환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社會制度和 規範에 대한 不信感이 보이지 않고 있다. 農村의 生活이 만족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運에 돌리거나 出世의 지름길로 家門이나 연줄을 택하려고 하

個人的 成就에 대한 評價

단위: 명(%)

	自己能力 과 意志	家門이나 연	運에 左右	計
隣 接 地	125(71.8)	281(16.1)	21(12.1)	174(100.0)
遠 接 地	135(79.9)	21(12.4)	13(7.7)	169(100.0)
平 均 計	260(75.8)	49(14.3)	34(9.9)	343(100.0)

지 않는다. 個人적 成就에 대한 評價가 높다는 것은 우리 나라 農村住民이 協業을 통하여 얻은 平等主義를 기초한 傳統的인 意識이 변화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隣接地와 遠接地로 비교할 때 그 評價値는 다소의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遠接地의 경우 80% 정도가 自己能力과 意志에 의한 出世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隣接地에서는 그 支持率이 70% 선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家門이나 연줄 또는 運에 좌우된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Ⅲ. 農村工業化에 대한 住民의 受容意識

農村工業化에 따른 個人적 指向意識 또는 價値觀은 비교적 農村工業發展에 대해 寄與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얻었는데 그러면 農村의 工業化가 工場의 誘致 또는 工業地帶의 形成을 통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指向意識은 어느 정도이며 方法 및 工業化의 影響에 대한 評價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즉 農村工業化에 대한 실제적인 接近意識은 어떠한가.

우선 農業 및 工業에 대한 重視度를 보면 國家發展을 위하여는 農業보다 工業 중심의 開發이 필요하다(71.0%)는 생각이 다수이다. 調査時期나 對象으로 보아 정확히 비교되는 資料는 아니

지만 都市의 企業從事者를 대상으로 한 같은 質問에서 5:1의 比率로 工業 중심이 우세하였음과 비교하면(生産性本部 1966) 農村住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工業中心의 發展에의 指向意識을 보인다. 물론 國家全體의 社會經濟的인 분위기가 이를 선도해 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農民 스스로가 工業生産보다 農業生産의 不利를 인식하고 있는 데서 연유된다고 하겠는데 工業地와 떨어진 遠接地보다는 工業地와 가까운 地域에서 더 강하게 工業重視의 意識을 表出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工業重視의 價値觀은 우리 나라의 工業化發展을 위한 前提條件 또는 原因的 要素로서의 중심적인 價値指向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점차로 약화되기는 하나 상당한 사람들이—農民 중 세 사람의 하나는—農業 중심의 國家發展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되어야 한다. 이는 工業生産에 대한 일반적인 農業生産의 不利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價値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볼 때 自己의 퍼스넬리티形成 과정에서 연유된 개인적 指向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人口層이 느끼고 있는 態度에의 同調 혹은 反撥에 의한 價値觀의 形成이라는 次元에서 보아 비교적 反撥적인 측면에서 傳統的인 生産方式의 固守意識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上位階層意識을 갖는 農業從事者에서 강한 傾向이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農村地域에 전개되는 農村工業化에 대한 接近意識은 어떠한가. 그에 대한 反應, 選好方法, 影響評價를 [다음에서 정리한다.

1. 農村工業化 및 都市化에 대한 反應

대체로 工業化와 都市化를 모두 적극적으로

農村工業化 및 都市化에 대한 反應

단위: 名(%)

	隣接地	遠接地	平均計
(農村工業化)			
農村保全	44(25.3)	39(23.1)	83(24.2)
工業化促進	130(74.7)	130(76.9)	260(75.8)
(都市化)			
都市化不願	31(17.8)	31(18.3)	62(18.1)
都市化希望	143(82.2)	138(81.7)	281(81.9)

選好하고 있으나 都市化에 대한 肯定的 反應이 더 높다.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工業化와 都市化는 개념의 差異가 있지만 결과적인 면에서 工業化와 都市化가 확연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農村住民들은 이를 차별적인 意味로 받아 들이는 것 같다. 都市化에 대한 認識은 都市의 生活樣式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工業化에 대한 認識은 生産方式의 有利性を 중심적 認識對象으로 삼는 것 같다. 즉 消費를 중심으로 한 日常生活의 便宜性面에서 都市化指向意識을, 所得增大의 可能性 측면에서 農村의 工業化를 인식한다는 두 가지 傾向이 있는 것 같다.

지난 20여년간 우리 나라는 近代化 作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都市化와 工業化가 크게 진척됨으로써 國民生活 構造面에서 많은 變化를 가져 왔다. 生産方式의 變化는 물론 消費生活의 패턴이 바뀌었고 意識面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모를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地域community의 變化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都市地域에서의 機能의 多樣化는 물론이지만 農村地域에 있어서도 都市的인 生活文化가 전파됨에 따라 住民들의 社會移動性を 높임과 아울러 經濟的 合理性은 중심으로 하는 自己中心의 思考方式이 커짐으로써 地域社會 統合度を 약화시키면서 都市의 文化 속에서의 生活을 선호하는 傾向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農村住民은 都市地域이 갖는 生活文化上的 受惠를 목표로 하는 手段으로서

農村地域의 工業化를 겨냥하는 것 같다.

따라서 農村工業化에 대한 反應意識을 중심으로 都市化와 工業化에 대한 綜合判斷을 해보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農村工業化에 대한 支持度는 農民들의 工業重視度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면서 工業地域에서 멀리 떨어진 農村地域에서 그 選好度가 隣接地보다 높다. 이는 工業化에 대한 觀念的인 기대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서 믿는 認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遠接地가 상대적으로 隣接地보다 社會施設에 대한 不滿度가 크다는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체로 農村工業化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農村保全을 주장하는 住民들에 비하여 工業化를 지지하는 住民들의 價値觀은 여러 면에서 類型的인 特徵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職業面에서는 現職에 대한 不滿度가 상대적으로 높고 추가적인 돈벌이에 대한 機會를 찾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自力에 의한 成就動機보다는 他人 또는 政府依存的인 性向을 보임으로써 農村工業化에 대한 選好에 비해 古代案的인 手段이 自生的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狀況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社會施設에 대한 滿足度의 여부와 관련하여 農村工業化에 대한 選好背景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農村工業化를 지지하는 住民層은 農村保存을 원하는 住民層에 비하여 住宅, 交通, 通信, 教育, 醫療施設 모두에 대하여 상당한 隔差의 不滿意識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문제가 住民 스스로의 힘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限界를 이미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것은 農村工業化의 方法上에 있어서도 政府主導的인 農村工業化를 支持(74.4%)하고 있으며 工業遠接地에서 그 強度는 더욱 높아지

고 있다(78.0%)

지금까지 우리는 農村開發의 문제를 두 가지 면에서 검토하고 추진하여 왔다. 하나는 工業의 再配置 또는 工業의 地方分散이라는 측면에서 工團의 形成을 통한 農村住民의 就業機會의 擴大와 所得의 向上을 기했으며, 다른 하나는 大單位 工業地帶의 形成과 都市化 進展에 따른 農村人口의 移出防止 및 地域間의 所得不均衡을 막고 農民들의 제 1차적 生活圈인 마을 中心의 自助的인 農村開發을 전개함으로써 總래의 村落 共同體를 서서히 國家 전체의 近代化와 步調를 같이 하여 변화시키는 方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의 方法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問題點을 안고 있다. 前者는 外部的인 主導와 刺戟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住民들의 생각이나 價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마찰을 야기시키고 農村地域社會를 와해시키는 副作用을 초래했으며 後者는 農村住民들이 갖는 都農地域間의 조속한 隔差解消라는 期待需要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감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農村開發에 대한 두 가지 接近方式은 현실적으로 어느 하나로 택일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단지 對象地域에 따른 取舍選擇이 필요한 것이며 이미 옛날 農村이 아닌 변화된 農村이란 認識을 바탕으로 한 接近方式이 요청된다. 道路, 交通, 通信의 擴充이 지름길일지 모른다.

2. 工場入住에 따른 影響

農村地域에 이미 工場이 들어와 있거나 또는 앞으로 工場이 들어선다고 할 때 어떤 면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地域住民들의 受容姿勢와 아울러 農村工業化 開發의 指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工場進出에 따른 影響을 肯定的·측면과 否定

的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한 바에 따르면 應答狀況으로 보아 다소 肯定的인 면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肯定的으로 보는 見解 중 指摘頻도가 높은 것은 「農外所得 증대」, 「工業從事機會 확대」 「人口의 離村抑制」로 所得向上에의 기대가 크고 工場入住에 따라 부수적으로 農村下部構造가 개발되고 農業機械化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미 工場이 들어와 있는 工場隣接地域과 아직 工場이 진출하지 않고 있는 工場遠接地와 비교할 때 肯定的 效果로 지적되는 項目은 大同小異하나 「工業從事機會 증대」의 效果가 다소 더 커지고 있고 다른 項目들에 대한 支持는 약화되고 있다. 한편 否定的 效果面에서는 「農村公害 발생」과 「農業勞動力 부족의 확대」를 지적하고 있는데 隣接地와 遠接地의 비교에서는 隣接地 住民들의 公害發生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農耕地減少와 地價上昇을 걱정하고 있다.

대체로 工場入住는 工業從事에 의한 農外所得 增大가 기대되기는 하나 農村公害를 否定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를 農業從事者와 非農業從事者로 나누어 보면 前者가 肯定的인 效果로 農外所得 증대와 離村抑制의 效果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후자는 雇傭機會 증대와 農地流動性 확대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며, 否定的인 效果로는 前者가 農業勞賃 상승과 農耕地 감소를, 後者는 農村公害 발생과 地價上昇을 상대적으로 더 우려하고 있다.

IV. 綜合 및 結論

農村의 工業化를 받아들이는 住民들의 기본적인 價値觀은 어떠한가 또 農村이 工業化됨에 따라 住民들의 價値觀은 어떻게 변모하는가. 이러한 問題에 解答을 얻기 위하여 本調査研究는 착수되었으며 調査에서 얻어진 解答을 기초로 農村開發을 위한 政策的 代案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오늘의 農村은 지난 20년내의 近代化作業의 成果로 해석되어야 할 일이겠지만 이미 과거의 村落共同體로서의 農村은 아니다. 都市住民과 거의 같은 水準에서의 經濟的 合理性을 바탕으로 새로운 平等意識이 지배하고 있고 工業隣接地의 住民이나 工業地域에서 멀리 떨어진 地域의 住民間에도 價値指向의 큰 差異가 없다. 물론 과거의 傳統 또는 生活樣式을 지지하는 人口層이 있으나 이들은 農·工業觀과 農村工業化에 대한 選好性에서도 단적으로 표현되듯이 全體人口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비록 保守的인 價値指向을 갖는다고는 하나 變化를 거부할 規律적인 힘이 없다. 단지 農村住民들의 意識을 지배하는 중요한 것은 都市住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낮은 階層意識과 生活施設의 不便이며 이로 인한 都市指向性이다. 傳統的인 價値는 이미 많이 쇠퇴되었고 都市人처럼 잘 살아보아야겠다는 意志가 中心的 價値觀이 되고 있다. 이것이 곧 農業工業化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意識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工業遠接地일수록 높은 勤勞性向, 個人的 成就性이 높으나 工業隣接地의 住民에 오면 그것이 低下된다. 또한 自力으로 所得을 향상시킬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農村工業化에 따른 否定的 效果를 우려하면서도 農外所得의 증대에 期待를 가지면서 政府主導에 의한 農村工業化를 바라는 依存的 價値指向을 하고 있다.

따라서 住民들의 意識變化의 측면에서 보는 한 農村工業化의 推進方向은 自助的인 努力의 支援과 計劃的이며 外部刺戟的인 工業地의 形成이라는 두 가지 方向에서의 檢討가 필요하다. 前者의 경우는 農業機械化 등을 위시한 農業生産性を 높일 수 있는 營農技術의 普及을 통한 本源的인 農家所得의 向上을 目標로 하는 것이며 後者は 地域與件上 農業生産이 불리하여 低所得層이 偏重的으로 있는 地域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 점차적으로 農業 중심 生産地를 工業 중심 生産地로 转化시키면서 住民들의 農外所得源을 확대하는 方式이 効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參 考 文 獻

- 李萬甲, 「韓國農村社會研究」, 多樂園, 1981, p. 85.
 崔在錫, 「韓國農村社會研究」, 一志社, 1981, pp. 385-394.
 李萬甲, 權泰煥, 愼鏞廈, 「새로운 工業團地의 形成이 農村社會構造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한 考察」 서울大學校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1979, pp. 35-36.
 金東一, 沈載雄, 庾喆仁, 「韓國農村住民의 삶의 質」,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pp. 170-172, p. 168.
 崔 協, 文石南, 朴商台, 「農村地域小規模 企業人과 農民의 한 比較研究」, 韓國文化人類學 第13輯, 1981, pp. 77-85.
 崔洋夫, 「農外所得과 農村工業開發」,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9, p. 34.
 韓國生産性本部, 「工業化發展過程에 있어서의 勞使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勞使協議資料 第11-12輯, 1966, pp. 9-12, p. 55.
 K.D.Kim, *Man and Society in Korea's Economic Growth*, SNU Press, 1979 pp. 3-29.
 H.Barringer, "Social Differentiation, Stratification & Mobiloty" in Y.S.Chang(ed.), *Korea: A Decade of Development*, SNU Press, 1980, p. 192-193.